

철새의 낙원 전남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벼 수확이 끝난 농촌은 지금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다. 특수작물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사계절이 바쁘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겨울이 휴식기간이 된다. 필자도 겨울이 되면 전남의 들판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와 천혜의 갯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경지와 갯벌이 철새의 낙원이 된다. 들판을 벼를 타작할 때 떨어진 낱알이 먹이에 굶주린 철새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삶의 터전이 된다. 철새는 자연환경에 따라 번식지인 러시아 등지에서 여름까지 생활하다 가을에 남하하여 우리나라나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조류를 말한다. 그 외에 북쪽에서 번식하고 가을과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머물다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내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북쪽의 번식지로 돌아가기도 있다. 이러한 철새들이 전남의 논과 강과 갯벌로 날아들어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장소로 해남의 고천암을 들 수 있다. 고천암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갈대밭과 인근의 넓은 간척지에는 추수가 끝나는 11월부터 이듬해 2

월 초 사이 전세계 가장오리의 90% 이상이 찾아온다. 호수를 둘러싼 갈대밭과 주변 논은 오염이 되지 않아 생태환경이 대단히 양호한 편이며 기온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해 철새들의 낙원이 되기에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오세아니아를 오가는 긴 여행의 중간 기착지로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 것이다. 고천암 들판과 호수에서 펼쳐지는 가장오리의 군무는 보는 사람에게 저절로 탄성을 지르게 한다. 고천암은 가장오리 외에도 저어새 황새 등 천연기념물과 기러기 등 철새들이 함께 겨울을 나는 천혜의 생존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다음으로 영암호가 있다. 영암호는 금호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대규모 호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 도래지로 전남에 위치한 담수호 중 가장 넓은 수면 지역과 간척지를 가지고 있다. 먹이가 풍부한 개펄과 넓은 수면, 따뜻한 기온때문에 철새들의 이동통로이자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또한 영암호 인근에는 추수가 끝난 수천만평의 간척지 논에 떨어진 낱알을 먹이로 공급해 주고 있어 해마다 철새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산호도 철새 도래지로 손색이 없다. 영산호는 인근 다른 담수호와 달리 영산강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물과 토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면성 오리류나 잠수성 오리류의 먹이로 이용되는 부

유물이 많은 편이다. 철새들은 영산호 상류 부근인 삼포천 합류 지점과 영암천 합류 지점 그리고 하류 지역인 영산강 하구둑을 중심으로 늦은 가을부터 이듬해 늦은 봄까지 머문다.

다음으로 순천만을 들 수 있다. 순천만은 생태계와 생물서식지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곳이며 갈대와 갯벌을 통한 하천수의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 공장이 없어 철새 도래지로 손색이 없다. 순천만 갯벌은 갈대숲과 어류 등이 풍부하여 철새 가운데에서도 희귀 조류인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다음은 나주평야로 영산강 중류의 충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로 주위 구릉지들을 포함해도 해발고도가 낮고 지형이 평탄해서 곡창지대로 불리며 벼 수확이 끝난 논에는 먹이가 풍부해 철새들이 많이 찾는다. 이밖에도 진도와 영광, 완도, 여수 돌산, 고흥반도의 득량만과 여자만에도 비교적 넓은 갯벌이 있어 철새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듯 전남은 넓은 농경지와 함께 천혜의 갯벌을 가지고 있어 먹이가 풍부해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남이 미래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탄소중립의 실천으로 철새들이 더 많이 찾는 건강한 남도가 되었으면 한다.

社說

서민 위한 물가안정 정부·정치권 몫이다

향토기업 보해도 소숫값 인상

연말을 맞아 '국민주'인 소주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줄곧 인상 억제해 왔던 향토기업인 보해양조가 앞새주 등 4개 제품의 출고가격을 지난 1일부터 6.98% 인상했다. 앞새주 360ml는 1165.6원에서 1246.7원으로 인상했으며 앞새주 200ml와 640ml도 각각 1026.19원에서 1097.68원, 2186.49에서 2338.52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와 함께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가격도 인상했다. 다만 보해 측은 '소금레시피'로 각광을 받은 보해소주(375ml)는 기존 출고가(1199원)를 유지키로 했다.

보해양조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데는 경쟁업체의 잇따른 소주 가격 인상과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과 부재료 가격 상승이 배경으로 꼽힌다. 보해 측은 그동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년 여간 소숫값 동결에 앞장서 왔다. 전국구 소주 가격 인상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소주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연말연시 소주를 찾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주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술에 매기는 세금인 '주류세'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증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 판매비율'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해줌에 따라 주류업계도 정부 방안을 반기며 '인하술에 따라 가격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병당 6000~7000원까지 뛰어 오른 음식점 소숫값이 실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의문이다. 한번 오른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는 데다 식당 등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의 원가 상승분을 소숫값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중인 정치권과의 만남은 반길 일이다. 수많은 난제가 얽혀 있지만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이 1순위로 논의할 것은 바로 '물가 안정화'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백일해 유행 예방접종으로 확산 막아야

광주서 최근 2주 새 9명 발병

최근 광주에서 백일해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 2급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환자나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되고 전염성도 강하다. 예방접종과 함께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올해 백일해 누적 발생 건수는 15건이다. 지난 2019년 29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주 사이 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환자는 지난 달 4일을 기준으로 83명에 이른다. 특히 1.8명인 올해 주간 평균에 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최근 5주간 주간 평균이 8.6명으로 크게 늘었다. 환자들이 대부분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됐다.

최근 갑작스러운 백일해의 유행은 낮은 예방접종률과 무관하지 않다. 백

일해 예방접종은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8종에 포함돼 있으며, 총 6회를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시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1세 97.9%(1~3차), 2세 94.3%, 3세 95.9%, 6세 93.8%, 12세 85.9%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유아기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는 만큼 4차의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도 필요하다.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위력은 약해졌지만 백일해는 여전히 2급 법정 감염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 삼아 발생 초기부터 정부가 선제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팔레스타인 여성이 5일(현지 시각) 칸유니스의 병원에서 시신 곁에 누워 슬퍼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6248명으로 늘었으며 그중 어린이가 7112명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AP/뉴시스

서석대

어느새 거리마다 반짝이는 트리 조명이 설치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진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다음 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뒤섞여 연말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이렇게 묘한 설렘이 삶에 스며든 연말에는 잇따른 송년회에 지친 아침이라도 캐럴 한국에 다시 마음이 들뜨고, 늦은 저녁 갑자기 떠오른 추억에 연락 뜸하던 옛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걸게 되는 따뜻하고도 위험한(?) 감정의 변화들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 여름휴가 등 직장인이라면 일단 입꼬리가 올라갈만한 휴일들이 1년 내내 이어지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는 무엇인가 다르다.

이러한 연말의 설렘을 십분 활용한 제품 중 눈에 들어온 것이 있다. 바로 12월을 하루하루 세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캘린더인 '어드밴트 캘린더'다. 어드밴트 캘린더는 보통 12월1일부터 크리스마スイ브인 12월24일까지의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입체 카드처럼 생긴 어드밴트 캘린더는 각 날짜에 내용물을 숨길 수 있는 작은 문과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사용자들이 매일 그 문을 하나씩 열어 안에 숨겨진 작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달력이다. 전통적으로 어드밴트 캘린더는 미국 등지에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내부에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사탕같은 간식을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좋아하는 영화나 콘텐트의 피규어를 담아놓은 제품을 비롯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의 미니어저 명품 화장품을 담아낸 어드밴트 캘린더도 등장하고 있다. 액세서리, 차, 잼, 커피, 맥주, 위스키 등 그 종류는 더욱 다양해져 이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인들의 마음도 설레게 한다. 매일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로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시간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는 것이다.

어드밴트 캘린더가 판매하려 하는 것은 단순한 초콜릿이나 피규어, 화장품 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판매한다. 평일에는 주말을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이 월급날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즐거움을 준다. 어드밴트 캘린더를 구매하면서 그곳에 들어있는 물건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마음'을 구매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에게 공통된다. 실패할 수가 없는 마케팅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기다릴 것이 필요한 존재들일지도 모르겠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에게 넘어진 날에는 다시 일어날 날을 기다리고, 헤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우는 날에는 다시 웃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라본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정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